

아동 사교육 시장 및 사교육비 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원준¹⁾

A Study on the Private Education Market for Preschool Children and Determinants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Won-jun Lee¹⁾

요 약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의의와 중요성은 높게 평가되어왔으며, 교육의 상당 부분은 사교육에 의존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사교육의 대상이 취학 전 아동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대상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2017년도 기준 만 3세~7세의 미취학 아동들의 사교육 이용 행동, 사교육비 지출, 그리고 사교육 서비스에 대한 태도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교육비 영향 요인과 사교육비 간의 관계를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정 내 학습량과 공교육 불안 태도가 사교육비 지출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취학 전 아동들에게도 사교육이 이미 광범위하게 보편화되었으며, 사교육비 지출 수준 역시 매우 높은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사교육 서비스 제공방안과 더불어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요청됨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 취학 전 사교육, 사교육비, 지출요인, 사교육 정책

Abstract

Traditionally, the importance and meaning of education has been highly evaluated in Korean society, and a great deal of efforts has come to depend on private education. Recently, the subject of private tutoring has been lowered to pre-school children. This paper describes the use behavior of private education and analyzes the antecedents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of preschool children aged 3 to 7.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education cost factors and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is analyz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is result shows that private education is already universalized for preschoolers, and the level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is also very high. Thus, based on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private education experience of preschool children,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better private education services and policies to reduce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Keywords :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Private Education Determinant, Education Policy

Received(October 5, 2018), Review Result(October 24, 2018)

Accepted(November 9, 2018), Published(December 31, 2018)

¹⁾(Professor) Business Dept., Cheongju Univ., Naeduk-dong, Cheongwon-gu, Cheongju, Korea
email: marketing@cju.ac.kr

* 이 논문은 2018~2019학년도에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서론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교육의 의의와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여 왔으며, 교육의 상당 부분을 가정교육과 공교육뿐만 아니라 외부 사교육에 의존하여 왔다. 초중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적극적인 사교육 이용을 통하여 성적 향상을 도모하여 왔고, 대학생이나 일반인들 역시 사교육을 통하여 보다 높은 생애소득의 달성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구해왔다.

최근에는 사교육의 대상이 초중고 학생에서 취학 전 아동으로까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부모들은 유아 및 아동기의 경험이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는 연계성을 대부분 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취학 이전부터 무엇인가 학습을 시작해야한다는 관념을 갖기 쉬우며[1], 상업적 목적의 사교육 업체들이 영재 교육의 중요성 등을 부각하면서 사교육은 저연령층까지 빠르게 확산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학력은 가장 강력한 문화자산으로서 사회적 계층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학력이 보장하는 좋은 직장과 고소득 연계성에 대한 인식은 취학 전 자녀의 부모들마저도 자녀 교육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2].

그러나 점증하는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학생에 대한 사교육 연구에 비하여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비 관련 조사나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였다.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기존 관련 연구 362편을 분석한 메타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교육의 현황 및 실태, 사교육 참여 요인, 사교육의 효과성, 사교육 경감대책, 공교육과의 비교, 세계의 추세 등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취학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진행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고 한다[3].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아동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사교육 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하고, 아울러, 조기 사교육의 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탐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취학 전 아동 사교육 시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관련 사교육 시장의 관리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취학 전 사교육

사교육이 주로 뉴스나 구전 등을 통하여 전파되는 사회적, 시사적 관심사 위주로 부각되어온 반면, 이에 대한 구체적 학문적 정의나 관련 연구는 비교적 희소하다. 통일된 개념적 정의의 부재에 따라 사교육의 의미나 범위는 다양한 정책 자료나 통계 보고서 전반에서 다소 일관성 없이 사용되어왔다. 일례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사교육 관련 통계의 집계 과정을 살펴보면, 2001년 이전에는 공교육을 제외한 광의의 모든 교육비 지출을 의미하는 일반 사교육 및 개인학습, 그리고 학원 수강

등을 지칭하는 과외 교육까지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그 이후의 조사에서는 일반 사교육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기준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개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고찰하는 것은 사교육 연구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규 공교육이 제공되기 이전인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은 기존 연구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4]. 관련된 소수의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외의 학원, 그룹 및 개인과외, 학습지, 방과 후 교실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할 수 있다[5].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실상부한 공교육의 일부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와 더불어, 교재비나 재료비 등 부대비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6]. 유치원이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연구자간 의견이 상이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유치원의 무상교육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제37조 1항을 근거로 유치원 교육비를 공교육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반면, 일부 다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사교육비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비용이 공공회계 절차를 거치느냐 여부에 따라 공교육과 사교육의 범위를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이란 가족에 의하여 혹은 공적인 비용의 전체 혹은 일부를 지급받는 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교육을 제외하고, 개인 부담 비용을 지출하고 참여하는 모든 형태의 수업과 활동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2 선행 연구의 동향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초중고 대상의 사교육 연구에 비하여 풍부하지는 않지만, 사교육의 실태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사교육 참여 동기 등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어 왔다.

첫째, 아동 대상의 사교육의 실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들이 통계청, 교육부 등 정부 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일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취학 후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09년 21.6조원에서 2013년 총 18.6조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9년 24.2만원에서 2013년 23.9만원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이 꾸준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7].

둘째, 사교육이 기대한 정도의 효과성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또 다른 흐름을 이루고 있다. 사교육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에 의하면 사교육은 단순히 부족한 학력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과 경쟁적 성적 향상을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은 대부분 사교육의 목적이 학업 경쟁과 높은 관련이 있으며, 공교육에서의 학업 성적 관리를 위하여 제도화되고 있다고 한다[8]. 관련 연구들은 이런 관점을 공유하며, 수업이해도 증대 등 학업성취에의 영향, 명문대학 진학 영향, 졸업 후 취업여부, 취업 후 임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9]. 반면에 사교육에 비판적인 연구들은 사교육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에 주목하면서 자녀의 스트레스 증가,

자녀의 학습 태도 및 습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가계의 재정 악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0].

셋째, 가장 폭 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연구는 사교육의 영향요인 및 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들이다. 사교육 참여를 촉진하는 영향 요인은 개인별 차이가 있지만, 크게 분류하면 소득, 교육 등 개인적 특성, 학교 교육의 특성, 사회적 인식, 정부 정책의 영향 등 복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우선 개인적 특성으로는 부모의 학력수준과 교육열, 가계 소득 수준, 개인의 성취동기 등의 요인이 보고되고 있다[11]. 학교 특성요인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 방과 후 수업, 학교의 특성화 수준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12], 정책적 요인으로는 누리 과정의 도입, EBS 수능 강의, 내신 및 수시 반영 등 교육정책의 변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4].

그러나 기존 연구는 학생의 성적 향상을 위한 투자라는 매우 제한된 변수를 중심으로 사교육 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취학 전 아동에게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공기관인 초중등 학교와 사교육 기관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 연구의 출발점은 공교육의 문제점 제기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존재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연구 출발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사교육 연구의 한계를 개선하고,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 실태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 지도의 방향이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절차 및 결과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만 3~7세 취학 전 자녀를 둔 서울 및 수도권 학부모 18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서비스 이용 행태와 사교육 제공 기관의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 평균 연령은 36.5세였으며, 조사대상 자녀의 평균 연령은 5.1세였다. 이들 가정의 총 자녀수는 1.67명으로 2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의 성비는 남(52.8%), 여(47.2%)로 남아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외벌이(27.8%), 맞벌이(72.2%)로써 맞벌이 가정의 비중이 높았다.

3.2 분석 결과

사교육의 이용증대는 필연적으로 가계의 재정적 부담 증가와 연결된다. 초중고 학생 대상과 달리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비 규모나 내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신뢰할 만큼 충분한 연구나 반복적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연구 부족 현상은 부분적으로 사교육비 집계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4]. 즉, 순수한 학원비 등의 집계 자체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에서도 영유아의 교육비 항목은 유치원 순수교육비, 유치원 특가활동비용, 유치원 돌봄 추가비용만을 교육비 지출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순 이용료, 어린이집 추가 비용은 기타 상품 서비스 지출로 분류하고 있어 관련 통계 자료의 산출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그 결과 정부의 공식적 통계 자료 이외에 실제 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교육비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과거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 기준으로 1인당 28.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3]. 그러나 취학 후 사교육은 취학 전과 질적, 양적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조사 결과 비교 대상을 한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응답결과에 따르면,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비는 1인당 평균 28.33만원 수준의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비에 관한 자료와 비교하여 다소 상향된 결과이며, 취학 후 아동과 비교하여도 결코 적지 않은 수준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교육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사교육비 결정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에 주목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모의 학력 및 소득수준, 도시지역 거주 여부를 주요 선행 변수로 주장하기도 하였고[7][14], 소득수준과 더불어 자녀 연령 간의 관계가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4].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들이므로, 그 연구모형을 취학 전 아동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인구통계적 변수(부모 학력, 총 자녀수)에 추가하여, 사교육에 대한 태도(사교육 만족도, 공교육 불안태도),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정도(육아 시간, 가정 내 학습시간, 가정 내 학습량)를 추가 변수로 고려하였다. 특히 저연령층 자녀의 특성상 가정 내 활동 시간이 사교육에 필요한 시간이나 참여 기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사교육비 지출에도 관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

[표 1] 투입 변수의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put Variable

변수명		정의	평균	표준편차
종속 변수	사교육비	광의의 사교육비로서, 자녀 1인당 학원과 육아지원기관의 총 지출비용 및 관련 특기활동을 포함한 총 비용(단위: 원/1개월)	28.33	22.136

독립 변수	부모 학력	더미 변수: 고졸이하=0, 대졸이상=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총 자녀수	총 자녀수(단위: 명)	1.67	.692
	육아 시간	광의의 육아 시간으로, 취침 및 학원 등을 제외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단위: 시간)	10.63	4.662
	가정 내 학습량	학원 및 육아지원기관을 제외하고, 가정 내에서 학습에 투입하는 시간(단위: 시간/1일)	2.26	1.998
	가정 내 학습비중	총 육아시간 중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의 상대적 비율 (단위: %)	15.33	11.432
	사교육 만족도	현재 이용 중인 사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5점 척도)	3.29	.722
	공교육 불안 태도	학원과 육아지원기관의 교육서비스만을 의존하기에는 불안한 정도(단위: 5점 척도)	3.51	.918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모형의 설명력은 r^2 값이 0.263으로 나타나, 비교적 수용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지나치게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공차한계(tolerance)를 측정하였다. 공차한계는 독립변수가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이미 투입된 설명변수가 설명하지 못하는 총 변동 부분을 의미하며, 다중공선성이 낮을수록 공차한계 값은 반대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공차한계의 최대값은 1이므로, 본 연구 결과의 경우 공차한계 값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변수 간 다중공선성 우려는 낮다고 판단되었다.

분석을 통하여 검증된 독립변수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사교육비를 예측하기 위한 총 7개의 변수 중에서 부모학력, 총 자녀수, 육아시간, 가정 내 학습량, 가정 내 학습 비중, 공교육 만족도의 6개 변수가 유의하였으나 사교육 만족도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총 자녀수, 가정 내 학습량, 가정 내 학습비중, 공교육 불안태도는 사교육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정 내에서 자녀의 학습을 권장할수록,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부모의 학력 수준은 비교적 낮은 유의확률($p < 0.10$)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육아시간과 사교육비 간에는 부(-)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을 중시하고 많은 상호작용 시간을 갖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은 감소함을 의미한다.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기준으로 독립변수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정 내 학습량(.261)과 공교육 불안(.206)이 사교육비 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표 2] 분석 결과
 [Table 2] Test Result

독립변수	회귀계수		t값	유의확률 (*<0.10, **<0.05)	공선성 통계량	
	회귀계수 (표준화)	표준오차			공차	VIF
부모 학력	9.471(.119)	5.345	1.772	.078*	.957	1.045
총 자녀수	6.447(.201)	2.130	3.026	.003**	.967	1.034
육아시간	-.665(-.140)	.318	-2.095	.038**	.958	1.044
가정 내 학습량	2.890(.261)	.738	3.916	.000**	.967	1.034
가정 내 학습 비중	.392(.203)	.131	2.986	.003**	.932	1.073
사교육 만족도	.146(.005)	2.075	.070	.944	.935	1.070
공교육 불안태도	4.967(.206)	1.668	2.978	.003**	.895	1.045

4. 결론

4.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교육 이용실태와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등 인식을 조사하고,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접근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논의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비 수준이 취학 후 학생들과 비교하여도 적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본 연구에서는 월 평균 28.3만원으로 확인)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교육비 지출이 과다함과 동시에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가정 간 격차와 불균형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취학 전 아동부터 사교육으로 시작되는 교육 격차는 향후 취학 이후의 성적 등에도 지속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상급 학교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친다. 과도한 조기 사교육으로 인하여 향후 정상적인 공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이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이 요구된다.

둘째,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통계적 변수 이외에 사교육에 대한 태도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정도를 모두 변수로 고려하여 진행한 연구는 본 연구만의 특장점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과거 초중등생 대상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받아온 부모 학력의 영향력이 낮은 유의수준($p < 0.1$)에서만 지지되었고, 일상적 유의수준($p < 0.05$)에서는 기각되었다. 이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사교육이 순수한 교육 목적 이외에 육아 부담의 경감에도 일부 있음을 인정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사교육에 자녀를 위탁하는 동안만큼은 어느 정도 육아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이런 동기 요인이 부모 학력과 무관하게 모두 작용함으로써 기존 취학 후 아동에 대한 연구 결과와의 차이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정도를 의미하는 가정 내 학습량

이나 가정 내 학습 비중이 모두 긍정적 유의한 관계임을 규명하였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정 내에서 학습을 유도하는 가정 분위기의 자녀는 보다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그러나 이런 사교육비 영향 요인 중에서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상황에서는 상식적으로 고객 만족이 더 많은 상품 및 서비스 구매, 더 높은 구매비용 지불 행동을 보이지만, 사교육 서비스에서만은 만족도와 사교육비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학 전 아동의 사교육 지출이 단기적 효과보다는 먼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성적이나 석차의 변화로 바로 쉽게 알 수 있는 취학 후 사교육과 달리 성과 측정 지표가 불분명하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

4.2 한계 및 향후 방향

본 연구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 확장 및 개선을 통하여 연구 결과를 보다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3세 이상의 취학 전 아동이며, 그 이하 연령대의 사교육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조기 교육의 연령 하향으로 인하여 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도 사교육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후속 연구는 취학 전 사교육과 취학 후 사교육 간의 연계성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학 전 사교육의 일부는 보충학습이나 초등학교 진학을 대비한 외국어 학습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의 선행학습 노력이 취학 이후의 학업이나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 표본은 도시 지역의 거주자로 제한되어 있다. 설문 조사의 용이성과 사교육이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점을 고려하면 어느정도 표본 선정의 근거를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농어촌 지역 중 규모가 큰 거점 지역의 경우에는 사교육을 위한 시설들이 존재하며, 적지 않은 이용자들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추가적 연구를 통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와 보다 적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Lee, Myung-soon, Review of Early Education's Researches and Alternative Perspective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2007), Vol. 4, No. 4, pp. 157-181.
- [2] Lee, Jung-won, A Study on the Early Private Education of Preschool Children Who Don't Use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09), Vol. 12, No. 1, pp. 29-55.

- [3] Paik, Il-Woo and Chung, Hanna, An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on Private Educ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2013), Vol. 44, No. 4, pp. 1-39.
- [4] Suh, Moon Hee and Yang Mi Sin, An Analysis of Private Learning Expenses of Young Children and Its Determining Factor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2013), Vol. 9, No. 3, pp. 189-207.
- [5] Kim, J-K, The Factors that Decide Pre-school Children's Using and Expenditure of Private Education,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004), Vol. 15, No. 3, pp. 67-86.
- [6] Kang, Lee Ju, Economic Burden and Its Related Determinants of Private Education among Pre-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07), Vol. 16, No. 2, pp. 315-331.
- [7] Lee, Kwang Hyun and Kwon, Yongjae, An Empirical Study on Household Expenditure on Education of Children and Its Determinants,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2015), Vol. 22, No. 3, pp. 83-107.
- [8] D. Baker, M. Akiba, G. LeTendre and A. Wiseman, Worldwide Shadow Education: Outside-school Learning, Institutional Quality of Schooling, and Cross-national Mathematics Achievem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001), Vol. 23, No. 1, pp.1-17.
- [9] Bae, Ho-joong and Ahn, Jun-ki,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Private Education for Employment on the Labor Market Relations and Outcomes, *The Korean Society for the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2011), Vol. 20, No. 4, pp. 99-124.
- [10] Park, Young-yang and Lee, Sung-hee, The Relationship of the Children's Stress with the Quantity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004), Vol. 4, No. 2, pp. 175-196.
- [11] Na, Young Mi and Yoon, Jung Hai, The Effect of the Mother's Educational Aspirations and the Household's Characteristics on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11), Vol. 20, No. 6, pp. 1199-1212.
- [12] Song, Kyung-oh and Lee, Kwang-Hyun, A Panel Analysis of School Characteristics Affecting the Demand for Private Tutoring of Academic High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Policy* (2010), Vol. 28, No. 4, pp. 301-326.
- [13] Lhm, Chon Sun, Woo, Myung Suk and Chae, Jae Eun, An Analysis of Private Education Demand in Korea: Learning Supplement and Strategic Investment, *The Korean Society for the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2008), Vol. 17, No. 2, pp. 1-27.
- [14] Ahn, Jae-jin, A Study on the Use of Preschooler's Part-time Private Education: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Age Groups and with School Age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2009), Vol. 5, No. 2, pp. 96-120.